

주가 Performance

(%)	1W	3M	YTD
HD 한국조선해양	-3.6	-8.1	-5.5
HD 현대중공업	0.2	-20.3	-0.8
삼성중공업	0.9	-23.2	-7.6
한화오션	7.1	-19.0	-15.3
HD 현대마린솔루션	-0.1	-7.2	1.9
HD 현대일렉트릭	4.8	-32.1	2.8
HD 현대건설기계	0.2	-14.1	41.1
HD 현대	4.0	-12.6	25.5
두산밥캣	4.6	-5.0	14.7
한국항공우주	-4.2	-9.3	28.3
LIGD&A	11.0	-2.4	9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3	-4.8	23.0
효성중공업	3.8	-21.7	65.2
LS일렉트릭	2.7	-20.2	122.9

Valuation summary

(배, %)	P/B	P/E	ROE
HD 한국조선해양	1.8	8.6	22.4
HD 현대중공업	4.6	18.3	27.9
삼성중공업	4.0	19.0	22.8
한화오션	3.9	20.3	21.1
HD 현대마린솔루션	9.5	25.0	40.2
HD 현대일렉트릭	10.6	28.6	42.5
HD 현대건설기계	1.5	13.3	16.0
HD 현대	1.5	7.3	22.8
두산밥캣	0.8	11.5	7.5
한국항공우주	6.8	39.6	18.4
LIG넥스원	10.2	44.0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3	28.7	nm
효성중공업	8.9	35.3	28.7
LS일렉트릭	12.6	60.3	22.7

참고: 2026년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기계 주간 코멘트

방위산업에서도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까?

- 선가 동향: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주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 선종별 대형 컨테이너선 선가가 2주 연속 하락. 중고선가 지수도 변화 없이 유지.
- 해운 지표: Clarksea 지수(선박 수익 지표)는 이번 주 41,789달러/일로, 직전 주 대비 0.2% 상승. 유조선 지표가 반등. 컨테이너선 지표도 견고한 수준에서 유지.
- 주간 코멘트 주제: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 지분 매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방산 분야에서의 인수합병 시너지에 대한 질문이 증가. 이에 관련 영향을 점검.

WHAT'S THE STORY?

방위산업에서도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 이는 그룹의 보유 지분이 15.9%로 확대되었기 때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결합심사는 지분율 확대에 발생한 의무 절차. 심사신청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의 경영권을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 상황. 결국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민영화(=보유 지분 매각) 의지가 가장 중요.

해당 이슈로 방위산업 분야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질문이 증가. 사실 국내 방산업종에서 상장사 간의 인수합병 사례는 매우 드문 편. 따라서 과거 사례를 참고하기는 어려운 상태. 이론적인 접근은 가능.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측면에서 인수합병의 효익은 비용절감과 시장 지배력 강화. 방위산업은 내수에서는 해당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편. 국내 방위산업은 회사별로 각자 서로 다른 하나의 아이টে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 주력제품이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구축이나 공통비용의 절감 효과는 제한적. 내수시장의 독점적 고객인 정부의 협상력도 절대적. 인수합병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 핵심 부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다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한 부품 내재화 효과도 제한적. 수출 프로젝트에서는 수주 계약 체결 여부와 평가 설정 등의 의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을 것. 수주 후 비용 통제에도 긍정적. 하지만 수출도 방산은 정부 대 정부 거래의 형태가 다수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에는 한계. 미래사업(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국내 주력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중복 투자를 회피하는 효과가 발생.

주식의 관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 이는 한화그룹과 한국항공우주 사례에도 적용 가능.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잠재적 지분 매수자의 존재 자체가 투자심리를 지지. 만약 다수의 잠재적 매수자로 인한 지분 경쟁까지 발생할 경우, 주식 수급에서도 호재. 다만,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국내외 경쟁사 대비 할증 거래 중. 관련 기대가 주가에 일정부분 반영된 상태. 즉, 추가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인수합병 관련 기대 보다는, 여전히 본업 펀더멘털의(실적, 수출 수주 등) 개선이 필요한 상태.

(다음 페이지에 계속)

산업 뉴스

HD현대중공업, 발전용 엔진 수주: HD현대중공업이 9.6천억 원(676백만 달러) 규모의 발전용 엔진을 수주. 자사의 주력인 9.6MW급 힘센엔진을, 북미 데이터 센터 주전원용으로 공급하는 계약.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대규모 발전용 엔진 수주 계약을 공시. 이번 수주는 4월 대비로도 약 59% 큰 규모.

Equinor,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 LNG선 용선: 해사 매체들에 따르면, Equinor가 카타르 LNG프로젝트 관련 선박을 용선. 해당 선박들은 Qatar Energy의 장기 용선계약을 기반으로 발주된 물량.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 용선 계약 지연되고 있는 상태. 언론에서는 선주사가 제 3자와 해당 선박에 대한 단기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 이러한 단기 용선계약들 덕분에, 시장의 우려와 달리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 LNG선은 지연 없이 일정대로 인도되고 있는 상태. 조선사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필리핀 해군, 호위함 추가 확보 추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이 호위함 2척의 추가 확보를 추진. 현재까지 필리핀 함정은 대부분 HD현대중공업이 수주.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도, HD현대중공업이 건조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한화그룹, 오스탈 USA 인수 추진: 한화그룹이 호주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 USA 인수를 추진. 성사된다면 그룹은 필리조선소와 함께, 미국 내 두 곳의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화USA는 오스탈USA인수를 위한 조건부 제안을 제출하고, 조만간 4주에 걸친 실사를 진행할 예정. 보도된 기업가치는 10.5-12억 달러. 해당 조선소는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핵잠수함 건조에 사용되는 모듈도 생산.

K2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 해당 사업은 K2전차에 드론과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장치 등을 탑재. 사업규모는 약 3조 4,48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8-2046년 (2032년까지 체계개발 뒤, 2033년부터 전력화 예정).

네이버, 부유식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 네이버가 미국 스타트업 판탈라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 해당 업체는 파력 발전을 활용한 해상 데이터 센터를 개발 중.

인도, 150대 규모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 추진: 인도가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을(NGTA)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 기존 노후화된 호크(Hawk) 고등훈련기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50대의 훈련기를 도입할 예정. 참여 업체들은 오는 10월 5일까지 정보요청서(RFI)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12월경에 공식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는 일정. 실제 훈련기 배치는 2030년 중반으로 예상. 입찰에는 한국항공우주, 보잉,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미국, 한국 조선사의 군함 건조 허용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군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 물론, 실제 수주와 건조를 위해서는 여전히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해외 조선소와의 협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가능성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태. 현재 상황에서는, 현지 조선소를 소유한 한화그룹이 가장 유리한 것이 사실. HD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도 가속화될 가능성.

조선업 주요 지표

	현재	지난 주 대비		2025년 말 대비	
	8월 14일	8월 7일	증감률 (%)	2025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5.64	185.64	0.0	184.7	0.5
벌크선 (Capesize)	76.0	76.0	0.0	75.0	1.3
유조선 (VLCC)	131.0	131.0	0.0	128.0	2.3
유조선 (51,000DWT PC선)	52.0	52.0	0.0	49.0	6.1
컨테이너선 (22,000TEU)	233.0	235.0	-0.9	235.0	-0.9
컨테이너선 (13,000TEU)	150.5	150.5	0.0	145.5	3.4
LNG선 (174,000m³)	248.5	248.5	0.0	248.0	0.2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213.0	213.0	0.0	191.1	11.5
벌크선 (Capesize)	71.5	71.5	0.0	66.0	8.3
유조선 (VLCC)	157.0	158.0	-0.6	120.0	30.8
유조선 (51,000DWT PC선)	48.0	48.0	0.0	43.0	11.6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36,500	36,000	1.4	24,850	46.9
벌크선 (Capesize, Non-Eco)	33,100	32,600	1.5	23,850	38.8
유조선 (VLCC, Eco)	117,500	117,500	0.0	65,500	79.4
유조선 (VLCC, Non-Eco)	103,750	103,750	0.0	58,000	78.9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41,789	41,688	0.2	29,856	40.0
BDI	2,863	3,089	-7.3	1,877	52.5
WS (사우디 기준)	453	393	15.3	58	687.0
CCFI	1,847	1,840	0.4	1,147	61.1
SCFI	3,355	3,276	2.4	1,656	102.6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2.8	2.6	8.7	4.0	-30.2
유가 (달러/배럴)	82.4	78.2	5.4	57.4	43.5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591.8	541.0	9.4	262.8	125.2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205.8	240.3	-14.4	71.8	186.8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spot, 천연가스는 HenryHub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조선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한국조선해양*	-3.6	15.4	-8.1	-5.5	1.8	8.6	22.4
HD현대중공업*	0.2	8.9	-20.3	-0.8	4.6	18.3	27.9
삼성중공업*	0.9	1.6	-23.2	-7.6	4.0	19.0	22.8
한화오션*	7.1	17.2	-19.0	-15.3	3.9	20.3	21.1
HD현대마린솔루션*	-0.1	-1.1	-7.2	1.9	9.5	25.0	40.2
Yangzijiang	10.0	26.6	16.4	32.8	2.5	8.7	31.3
CSSC Holdings	-4.1	-2.6	-17.6	0.5	1.6	13.0	12.6
CSSC Offshore	0.2	2.2	-14.8	-8.0	n/a	n/a	n/a
ST Engineering	6.2	1.8	5.7	30.2	11.6	32.3	37.6
Seatrium	0.0	6.5	-4.9	-0.9	1.0	13.5	7.8
Mitsubishi	5.2	11.1	4.3	10.8	5.5	50.0	11.6
Kawasaki	2.6	4.5	-6.5	37.3	3.1	25.6	12.7

참고: 8월 14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기계업: 주가 performance 및 valuation 요약

(%)	주가 performance				2026 valuation		
	1주일	1개월	3개월	YTD	P/B (배)	P/E (배)	ROE
HD현대일렉트릭*	4.8	-1.4	-32.1	2.8	10.6	28.6	42.5
HD건설기계*	0.2	7.3	-14.1	41.1	1.5	13.3	16.0
HD현대*	4.0	18.8	-12.6	25.5	1.5	7.3	22.8
두산밥캣*	4.6	5.7	-5.0	14.7	0.8	11.5	7.5
한국항공우주*	-4.2	-0.3	-9.3	28.3	6.8	39.6	18.4
LIG D&A*	11.0	9.7	-2.4	92.0	10.2	44.0	2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3	26.6	-4.8	23.0	5.3	28.7	nm
효성중공업*	3.8	4.9	-21.7	65.2	8.9	35.3	28.7
LS일렉트릭*	2.7	4.6	-20.2	122.9	12.6	60.3	22.7
Lockheed Martin	3.5	18.3	18.0	25.8	13.1	20.0	81.4
Raytheon	-0.0	13.8	30.3	21.6	4.4	30.8	14.4
Siemens	1.5	5.1	9.4	18.8	3.3	25.3	13.5
Caterpillar	1.7	-6.3	-3.6	49.5	18.3	31.5	64.5
Komatsu	-0.6	13.7	12.6	46.0	2.0	18.3	11.2
Kubota	-0.3	-0.7	-6.0	24.1	1.1	12.8	8.6

참고: 8월 14일 종가 기준, * 당사 추정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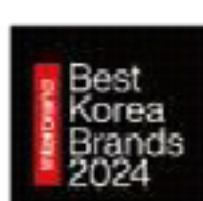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